



지난 2007년 11월 26일 열린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참가자들이 경기에 앞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일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D-4 전국 아마 강자들 함평 몰려온다

샷건·신페리오 방식 치러

프로급 샷으로 무장한 전국 최강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함평으로 몰려온다.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의 여름축제인 '제2회 광주일보배 전국 남자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8일 오후 1시 호남 최초의 4계절 진초목 양산지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파72)에서 티오프한다.

광주일보 주최, 함평다이내스티CC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60명 40팀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한다.

전국 단위의 각종 아마추어 대회를 휩쓴 서울, 경기의 아마추어 강자들이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출사표를 던졌으며, 광주, 전남, 전북 등의 골프 애호가들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라운딩에 합류했다.

최연소 참가자인 고영탁(26·광주시)씨는

젊은 패기를 앞세워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최고령자인 함영수(68·목포시)·김종명(68·목포시)씨는 차분함과 노련함을 무기로 대부분 30~40대인 참가자들과 겨루겠다는 생각이다.

김진위(44)·차균환(51)·하동진(44)·이동수(44) 등 경기지역 참가자들은 전국 대회를 두루 섭렵한 숨은 고수들이다. 정동혁(38)·공성환(51)씨 등 서울 지역 참가자들도 프로수준의 샷으로 대회 입상을 노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호남 최고 권위의 아마추어 대회를 지향하는 만큼, USGTF-KOREA(미국골프지도자 협회 한국연맹)가 나서 공정하고 매끄러운 대회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대한조선, 필라코리아, 엠바코리아도 대회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탤다.

대회는 샷건·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지며, 대한골프협회가 승인한 골퍼규칙과 경

기위원회가 정한 로컬 룰이 적용된다.

입상자들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푸짐한 부상이 수여된다. 특히 우승자는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CC 회원대우, 준우승자와 메달리스트에게는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CC 준회원 대우라는 특전을 부여한다.

77타 이하를 기록한 참가자(장년부 79타, 시니어부 82타)에게는 USGTF 실기테스트 합격권도 준다. 행운의 첫 홀인원을 기록하면 KIA 자동차의 중형세단 K5의 주인이 된다.

차성만 함평다이내스티CC 대표는 "어느 대회보다 공정하고 매끄러운 경기진행으로 전국의 아마추어들이 마음껏 기량을 겨룰 수 있는 호남 최고 권위의 대회를 만들겠다"며 "최적의 그린과 페어웨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나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윤석민·로페즈·차일목 올스타전 출전

감독추천선수 24명

KBO, 엔트리 확정

KIA의 '임투관저' 윤석민·로페즈가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다. 포수 차일목도 프로데뷔 후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초대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3일 올스타전에 참가할 감독추천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웨스턴리그 조범현 감독의 추천선수로는 윤석민·로페즈·차일목(이상 KIA), 박현준·주키치·정성훈(이상 LG), 김성태·유한준(이상 넥센), 박정진·신경현·이대수·최진행(이상 한화)이 선정됐다.

이스턴리그 김성근 감독은 정우람·정대현·정상호·최정·박정권(이상 SK), 오승환(삼성), 김선우·니퍼트·양익지·오재원·김현수(이상 두산), 장원준(롯데)을 추천선수로 확정했다.

웨스턴리그 유격수 부문 베스트10에 선정됐지만 부상으로 참가가 무산된 KIA 김선빈을 대신해 넥센 강정호가 대체 선수로 선발됐다.

팬 투표로 선정된 20명과 감독추천을 받은 24명 등 총 44명의 올스타는 오는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앞서 열리는 팬사인회, 홈런레이스 등 각종 행사에도 참가해 프로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범현 감독 500승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이 13일 무등경기장에서 500승 달성 기념 시상식을 가졌다. 조범현 감독은 지난 8월 LG전에 서 1-0으로 승리하며 감독 데뷔 후 988경기 만에 500승을 달성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마운드의 희망 한기주·손영민·박경태

“V11, 토끼띠 3총사에 맡겨라”

후반기 맹활약 예고

‘토끼띠 3총사’가 프로야구 하반기 KIA 마운드를 이끌며 V11을 꿈꾸고 있다.

2006년 KIA 유니폼을 입은 동갑내기 ‘3인 3색’ 한기주·손영민·박경태가 그 주인공이다. ‘10억 팔’ 한기주가 12월 1군에 합류하면서 이들 1987년생 트로이카는 본격적인 마운드 점령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기주는 2006년 프로야구 역대 최대 계약금인 10억원에 호랑이 강속구 군단에 합류했고, 손영민은 2차 1번 그리고 박경태는 2차 3번으로 KIA에 입단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는 한기주. 아마구를 평정했던 한기주는 입단 첫해 3.26의 방어율로 10승11패1세이브8홀드를 기록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한기주표 강속구로 특급 마무리로 활약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갔지만 팔꿈치 통증을 안고 있던 한기주는 2009시즌이 끝난 후 인대 접합수술을 받으면서 1군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KIA의 잠수한 계보를 이은 손영민은 2006년 2경기에 나오는데 그쳤지만 2007년 3승1패2홀드의 기록을 남기며 가능성을 보



한기주

손영민

박경태

여줬다. 그리고 2009년 광정철·유동훈과 막강 불펜진의 주축으로 활동하면서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기대를 모았던 2010년, 출발이 좋지 않았던 손영민은 결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합류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한해를 보냈다.

2008년 1군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박경태는 좋은 구위를 가진 선수로 KIA의 좌완 가운뎃손을 해결해 줄 기대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타자와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은 박경태는 1·2군을 오가며 성장통을 겪었다.

재활과 부진으로 아쉬운 2010년을 보낸 세 선수가 2011년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지난해와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하게 된

만큼 세 선수의 각오도 표정에도 남다르다.

손영민은 지난해 부진을 씻고 올 시즌 흔들리는 불펜에서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월 현재 2.45의 방어율로 4승3패4세이브7홀드를 기록했다.

박경태도 한층 노련해진 피칭으로 좌완 고민에 시달리던 KIA에 단비가 됐다. 지난 3일에는 한화와의 홈경기에 임시 선발로 나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선발의 꿈을 안고 힘든 재활의 시간을 끝냈던 한기주는 14일 기다리던 선발 자리에서 뒤늦게 2011년을 시작하게 됐다. 2006년 8월 9일 한화와의 대전경기 이후 생애 두 번째 선발이다. 성적은 좋지 못했다. 2이닝 6피안타 3사사구 1탈삼진 6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투수가 됐다.

한기주가 선발 특명을 받으면서 완성된 3인 3색의 트로이카 체제, 손영민과 박경태는 친구의 선발 첫 승을 위해 14일 힘을 합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기만 해도 시원한 파도타기

브라질의 실바나 리마가 13일(한국시간) 프랑스 해변에서 열린 록시 프로 서핑 대회에서 멋진 파도타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엔틱 식탁, 좌탁, 거실장, 침대

ITALY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카우치-20종류

ITALY

SINCE 1992

100% 이탈리아 가구 직수입 도·소매

동구 장동 58-15 동구청-전남여고 사이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